

“신행정수도 건설과 금산군 발전방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과 금산군(군수 김행기)은 8월 25일 오후3시 금산을 다락원내 생명의 집 소극장에서 금산지역 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금산군 발전 방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행정수도 배후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산군지역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에 따른 금산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금산군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금산군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금산군 지역에 어떤 변화가 모색되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충청발연의 송두범 박사(도시·지역연구부장)는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금산군 특

화전략’에 대해 ▲신행정수도 전원주거 지역 기반구축 ▲생태환경 및 자연경관의 복원·보존을 통한 상품화 ▲금산인삼을 세계 최고의 건강브랜드로 육성 ▲일년 내내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는 금산만들기 ▲중부권 최고의 산림도시 만들기 ▲신활력지역 선정에 따른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특화전략 추진방안으로는 ▲인접지역과의 협력 및 제휴 ▲장소판촉활동의 전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행정수도 연계전략 수립 ▲신행정수도 입지를 지역상품마케팅에 활용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권 차원의 성장관리방안 모색 ▲신행정수도 입지에 대비한 지역협의체 구성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 한상욱 책임연구원과 김정인 소장(V.I.Land)은 “금산군의 경관관리 방향”에 대한 공동 주제발표에서 “금산군은 산과 공원이 많아 경관기능 및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며 이들 보전 및 정비방안으로 ▲주요 산 주변 경관관리 구역 지정 ▲금산읍 3개 지천 여가공간조성 ▲금산군 대표경관 10선 지역의 우수경관을 보존, 조성 ▲층고규제에 의한 주거지 경관의 지역적 통일적 유지 등을 제시했다.

또 정종관연구위원과 정희성(KFI연구위원)은 “환경친화적 금산의 발전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산지역 생태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환경과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녹색생태마을 조성 추진 ▲산지자원의 관광 상품화 ▲환경자원의 상품화로 주변 대도시 시장의 개척 ▲보전지 와 개발가능지의 엄격한 분리 ▲농촌어메니티 발굴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을 주최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 시작되면 무엇보다 지역연계발전이 시급하다”며 “금산군은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 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남-전북 협력적 지역발전 방안 함께 모색”

충남, 전북발전연구원 학술·연구교류 협약식 및 라운드테이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전북발전연구원(원장 한영주)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서해안 벨트 형성 등을 통한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측 발전연구원은 지난달 8월 31일 전주전발연 중회의실에서 ‘전북·충남 공동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류 협약식 및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개최하고 학술교류 협약체결에 이어 충남·전북의 공동발전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충남도 입장에서 발제에 나선 송두범 총발연 도시·지역연구부장은 ‘충남·전북간 협력·제휴를 통한 공동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들 간의 생존수단으로 인식되는 전략적 제휴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영전략에 활용,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휴를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은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를 충남·전북행정협의회의로 전환하고 협의회 산하에 부문별 실무추진위, 사무국기능 강화,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입장에서 발제에 나선 이창연 전발연 연구위원은 ‘충남·전북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 연구원간의 주요 협력과제로 ▲금강수계 하천환경 및 경관조사·분석 ▲백제문화권 공동협력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산업 활성화 ▲지식기반산업 벨트 조성 ▲자동차 부품산업 및 연구개발 협력네트워크 등을 제의했다.

양 연구원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만간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시스템을 조직화해 실질적인 공동연구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연구원간의 학술·교류 협력식을 시발로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두 주체간의 정책적 협력적 기반이 모색됐다” 며 “앞으로 단순히 연구교류 차원을 떠나 실질적인 연구 및 정책지원이 이뤄지는 실사구시형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계룡시 승격의 역사적 의의와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과 계룡시(시장 최홍묵)은 9월 18일 오전 10시 계룡시청 대회의실에서 계룡 지역 주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승격의 역사적 의의와 발전 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행정수도 배후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계룡시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입지에 따른 계룡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계룡시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계룡시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계룡시 지역에 어떤 변화가 모색되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건양대의 임양빈 교수(건축학과)는 “신행정수도와 계룡시의 도시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계룡시 도시발전 연계전략을 ▲대전권 기능의 능동적 수용 ▲충남 서남부권과의 긴밀한 연계 ▲인접 시군과의 기능분담 및 공동대응 ▲통합적 농촌지역개발 추진 ▲지역특성화의 추구 및 권역별 특화전략의 실행 등을 제시했다.



계룡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 지역특화 관광상품의 개발 ▲ 생태체험 및 문화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 ▲ 관광브랜드 정립 및 홍보강화 ▲ 녹색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 관광기반의 정비 등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최병학 연구위원(충발연 자치정책연구부장)은 “계룡시 승격의 성공요인과 1년 성과 및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계룡시 설치는 충청남도와 계룡 주민의 올곧은 의지와 굳건한 신념의 결실이었다”고 전제하고 계룡시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방안에 대해

- ▲ 시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적 자치행정체제 구축
 - ▲ 독창적인 민군화합형 최첨단 국방모델도시 육성
 - ▲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및 지식정보화기반 확충
 - ▲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분야 중점 육성
 - ▲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자연친화적 생태자원 보호
 - ▲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미래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 ▲ 시민정신 발양으로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구현
-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을 주최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 시작되면 무엇보다 지역연계발전이 중요하다”며 “계룡시는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에 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메니티 서천과 향후 과제" 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9월 21일 오후3시 서천군청 회의실에서 충발연 연구진과 서천군 지역 도의원/군의원 및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메니티 서천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해안시대 중심지역 및 신행정수도 연계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천군 지역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입지에 따른 서천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서천군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서천군 지역 도의원/ 군의원들이 대거 참석, 서천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충발연의 성태규 박사(기획조정팀장)는 "어메니티 서천의 평가와 추진과제 검토"에 대해, 한상욱책임연구원은 "어메니티 서천과 경관관리계획"에 대해, 권영현연구위원은 "서천 이미지 정립을 위한 디자인 활용 방안"에 대해, 박철희책임연구원은 "어메니티 서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의 과

제" 대해, 이인배연구위원(경제·관광연구부장)은 "어메니티 서천을 위한 서천문화관광자원 육성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박영조·전영환 지역도위원과 황대원·오세옥 군의원들은 지역현안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나소열 서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서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메니티'라고 강조하고 오늘 충발연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보다 진일보한 '어메니티 서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을 주최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서천군은 관광문화와 여가문화의 교류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